

♡—seikyoonline—♡

'SOKA 유스 페스타(Youth Festa)' 11, 12월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

2022년 9월 16일

청년 세대가 확대에 선구!

‘창가(創價)의 청년’이 광포확대(廣布擴大)의 투쟁에 결연히 일어선다!

‘청년·비약의 해’의 총 마무리를 향하여 11, 12월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SOKA 유스 페스타’가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현 또는 총현(總県)·총구(總區) 이하의 단위에서 결정>

청년세대가 대화확대(對話擴大)와 새로운 인재(人材)의 배출(輩出)에 총력을 기울여 그 결승점으로서 의기 드높게 실시한다. 페스타에는 남자부(男子部), 여성부(女性部)·이케다화양회(池田華陽會), 영시라유리(Young白百合) 세대 대표, 학생부(學生部)가 모인다.



차대를 책임질 후계의 청년이 광포의 맹세에 불타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자부, 여성부·이케다화양회, 여학생부, 남학생부의 벗) @seikyoonline.com

지금, 지용(地涌)의 젊은이들이 사명(使命)의 무대(舞臺)에서 승리의 실증을 보여주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남자부는 대학교생(大學校生, 남자부의 인재육성그룹)과 창가반(創價班) · 아성회(牙城會)의 신시대생을 선두로 홍교(弘敎)에 선구(先驅).

여성부는 '창춘미팅(創春Meeting)'과 화양칼리지(華陽College)를 통해 격려와 대화의 화원(花園)을 크게 넓히고 있다.

학생부는 '행학(行學)의 이도(二道)'의 실천에 도전해 새로운 영지(英知)의 스크럼을 구축해 간다.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은 일찍이 엮었다.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이 엄연히 일어선다! – 여기에 창가(創價) 청년의 본회(本懷)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검(眞劍)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기를 분기(奮起)시켜 마음의 벽을 부수고 확대의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창가(創價)의 정의(正義)를 만천하(滿天下)에 보여주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때는 지금! 용기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울리면서 우리 지역에 우정의 연대를 넓히자.

니시가타(西方) 청년부장은 맹세한다.

“이케다문하(池田門下)의 청년이 사회의 희망과 빛, 새로운 시대건설을 리드해 가겠습니다.”